

## 지난 3년 래 서울 집 구매 목적 40%는 '임대'



▲ 서울 주택을 구매한 20대의 60%는 임대를 목적으로 구매했다. 사진=shutterstock

2018년 이후 서울에 집을 구매한 40% 가량은 임대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시에서 제출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 5,930명 가운데 42%를 차지하는 19만 1,058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가운데 76%인 328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역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산 이들이 전체 1만 1,914명 가운데 7,122명으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상일수록 본인이나 가족들이 직접 살기 위해 집을 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집을 산 30대의 경우 전체 주택구매자 12만 4,358명 가운데 55%인 6만 8,653명이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응답했다.

60대 이상 주택구매자의 경우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했다는 비율이 38%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8만 4,337명 가운데 53%인 4만 4,984명이 본인이 직접 거주를 위해서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실거주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령별로는 2018년생(만 2세) 주택구매자 4명 중 4명, 2016년생(만 4세) 주택구매자 9명 중 8명, 2006년생(만 14세) 주택구매자 29명 중 25명이 서울에 산 집을 임대하겠다고 응답해 전체 연령 가운데 임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장 비용 폭등

전년대비 무 89%, 배추값 67% 쾡충



▲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값이 폭등했다. 사진=shutterstock

사상 최장기 장마에 이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하며 김장을 앞둔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6일 '매일경제'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전달대비 0.7%) 상승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4월 이후 급격히 둔화된 후 지난 5월에는 마이너스(-0.3%)로 떨어졌지만, 8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물가 상승폭을 키운 것은 채소류 가격이었다. 채소류 등이 포함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대비 21.5%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은 전년대비 34.9%, 전월대비로도 15.2% 급등했다. 신선과실은 전년대비 16.1%, 전월비 18.6% 올랐다.

배추 값은 지난해 9월 대비 67.3%, 무 89.8%, 토마토 54.7%, 파 40.1%씩 올랐다. 농산물 전체로는 전년대비 19.0%, 전월대비 13.2% 올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포기에 3,413원이었던 고랭지 배추의 도매가격은 9월 현재 7,765원, 소매가격은 같은 기간 4,885원에서 1만740원으로 급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유통 중인 배추는 강릉, 평창, 태백 등 강원도의 고랭지에서 재배되고, 올해 재배면적 감소와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11월과 12월 김장철에 출하되는 가을배추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생산량이 많아 본격적인 김장철 이전에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외환보유액 네 달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네 달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을 이어갔다.

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2020년 9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205억5,000만 달러로 전달(4,189억5,000만 달러) 대비 15억9,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보유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한 시장안정화 조치에 지난 3월 한달 새 89억6,000만 달러가 급감하며 4002억1,00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시장안정화 조치에 쓰인 자금이 다시 회수되며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 처음으로 4,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달에는 4,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네 달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고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나면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평채는 외화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자금은 기금에 귀속돼 외환보유액으로 운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0월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 6억2,500만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 유로어치를 발행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올해 5월 말 기준 4,190억달러로 세계 9위를 유지했다. 1위는 중국(3조1,646억 달러)이었고, 2위는 일본(1조3,985억 달러), 3위는 스위스(1조125억 달러)였다.



▲ 자료=한국은행, 그래픽=타운뉴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Since 1978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남가주 전지역

## 주택, 아파트, 상가, 매매 및 투자상담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 로스 알라미토스

방4 화3 2,590sq 최고학군 위치  
동네 인접 프라이웨이, 상가, 부엌, 화장실  
완전 리모델, 아늑하고 잘 정비된 정원  
새집과 같음  
**\$795,000**



### 애나하임 단층집

방3 화2.5 1,751sq 최고학군 좋은동네  
넓은 뒷마당, 많은 과일나무, 교통편리  
공원, 상가, 차고뒤에 방, 화장실 있음  
인컴 창출 포텐셜  
**\$735,000**

- \* 로스 알라미토스: 방3, 화1 1,121sq, 넓은대지, 리빙룸, 최고 학군, 인접 사립 교회, 공원, RV파킹 가능함 **\$739,000**
- \* 사이 프레스: 방4 화3 2,250sq, 최상의 학군, 부엌 업그레이드, 넓은공간과 천장 Walk in Closet, 큰 보너스룸, 이중 창문, 인접 상가, 교통 편리 and much more **\$899,000**
- \* 로스 알라미토스: 방3 화2, 1,504sq, 타운홈, 많은 업그레이드, 넓은 마스터 룸 스텐레스 주방, 최상의 학군, 조용하고 편리한 위치 **\$698,000**
- \* 오렌지: 방5 화3, 2,700sq, 애나하임 힐과 가까운곳, 최상의 거주 지역 산근처 하이킹, 좋은학군, 학교, 도서관, 공원, 상가, 교통편함 **\$1,200,000**
- \* 애나하임: 3유닛, 독립 차고, 방2 화1, 그밖 1/1 유닛 포텐셜 굿, 오너가 살 수 있음 은퇴 투자용 최적, 다운타운 가까움 **\$775,000**
- \* 애나하임: 2유닛, 독립차고, 각 방2 화1 은퇴 투자용 적합, 독립된 그라지 인컴 굿 **\$695,000**
- \* 산타애나: 3유닛, 부엌 업그레이드, 1유닛 방5 화2, 3유닛 1/1 지하실 리모델 했음 **\$820,000**

그밖에 많은 주택 그리고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적은 유닛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714.336.1983** dmoon4989@gmail.com